

특필기고

부처님 오신날과 Buddha's Birthday

묘봉스님 (서울화계사문화원장)

한 불자가 불평을 한다. "왜 불교에서는 나라마다 부처님 생신날이 다를까?" 나도 몰랐다.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 어느 부처도 태어난 적이 없고, 따라서 살아가는 세계도 없고, 마땅히 죽음도 없다는 경전 말씀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생일(birthday)이라니, 이 무슨 사건인가? 불교의 눈으로 본 Buddha's Birthday는 망어(妄語)다. 탄생은 이미 절대적 오류다. 이미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란 무엇인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석가모니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사카(Sakya)부리의 무니(muni)를 석가모니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음역(音譯)일 뿐이다. 능인(能仁) 적묵(寂默)이라 하면 뜻이 분명해진다. 적묵한 자리에 무슨 오고 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 무슨 따질 생일이 있을 것인가? 어느 날에 부처를 엮어매지 말자. 그러면 진정 부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육체와 영혼이라는 대립을 궁리한 최초의 생명체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부처의 존재를 색신(色身)에 국한시키지 말자.

물론 안다. 성인의 탄생을 기리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마치 크리스마스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축제'에 집착하는 것은 부처의 뜻이 아니다.

산스크리트어 타타가타(tathagata)를 한자로 여래(如來)라 한다. 스스로 현현(顯現)하시는 분, 온 곳이 없는 분이라는 예기다. 이런 분의 출세(出世)를 어찌 Birthday라 할 것인가.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다. 태양 신화의 날을 예수 탄생일로 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회람 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예수 탄생일로 여기는데 이를 에피파니(epiphany)라 한다. 에피파니는 '나타나다'는 뜻의 회람어에서 유래했다. '성(聖)스러운 자의 현현(顯現)'이라는 뜻이다. 카톨릭에서는 한자로 '예수 공현 축일'이라 부른다. 이와 비교해도 Buddha's Birthday는 옹색하다.

부처님 오신 날을 영어로 the day of Buddha's coming 또는 Buddha's coming day라고 표현하자는 주장도 있다.

의미로 본다면 Buddha's Birthday 보다는 분의에 가까이 다가간 듯한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느 하루에 부처의 출세를 묶지 않는 것이다. 연등불(燃燈佛)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출현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재 미지정 사찰 건축·실내 장식물 방염처리 의무대상 제외

조계종, 소방방재청과 협의 거쳐 확정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 건축물과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및 소방방재청과 협의 거쳐 사찰방염처리 대상물 구제적으로 확정해 5월 16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사찰 목조건축 △불단, 탑집, 불상, 불화 등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커튼이나 가

펫, 합성수지벽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단, 종이벽지의 경우 두께 2mm 이하일 경우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찰 방염처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29)'에 따라 실시되어 왔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조계종 문화부는 "그동안 일선 소방서의 잘못된 업무처리와 방염처리업자의 상술로 인해 마치 모든 건물과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왔다"며 "각 사찰에서는 방염처리 의무대상 목록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은 '중요문화유산 방염처리 도포사업'의 대상건축물 대부분이 백화화 및 열화, 과다습윤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snocopy@buddhapia.com

“사찰 도난사고 조심하세요”

광명 청룡사 법당에 도둑...부처님 오신날 전후 요주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의 도난 방지가 요구되고 있다. 절도범들이 불자들의 출입이 많고 스님과 종무원들이 바쁜 사찰을 노리기 때문이다.

광명 청룡사(주지 법륜)는 5월 16일 자정 이후 대웅전 본존불로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상의 복장물을 도난당했다. 법당에 침입한 절도범은 방석외피로 CCTV 렌즈를 가리고 법당 마루에 방석을 깔고 밟고 다니는 치밀한 수법으로 복장물을 털었다.

30년 전 장건원 청룡사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상 이외에도 4좌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으나 본존상 복장만 도난을 당했다.

청룡사 주지 법은 스님은 "17일 새벽 도난 사실을 알고 CCTV 녹화 화면을 확인해 보니 범인들이 방석 외피로 렌즈를 가렸지만 강한 불빛이 녹화되어 있었다"며 "이 불빛은 범인들의 후레쉬 빛이 아니라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방광이 확실

하다"고 말했다. 0시 24분부터 5분간 녹화 화면에 담긴 불빛은 푸른빛을 띠며 본존불의 복부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된다는 것이다.

법은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른 불상들의 파손을 막기 위해 범인들에게 위신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반 절도범이 아닌 특수절도자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임연태 기자 yllm@buddhapia.com

양주경찰서 경승실 봉축법요식

용하 스님, 모범경찰관 자녀에 장학금 전달도



양주경찰서 경승실장 용하 스님이 모범경찰관들에게 자녀들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양주경찰서 경승실(실장 용하)은 5월 15일 양주경찰서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양주 지장사 주지 대운, 경승실장 용하, 경승실 총무 석정 스님, 김사웅 양주경찰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요식에서 대운 스님은 "불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며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항상 수행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전했다.

법요식에서 경승실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운 스님과 동두천 보문사 주지 정오 스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용하 스님은 모범경찰관 자녀 6명에게 총 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설명회

조계종, 이달 29일 개최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구역'과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과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 기한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조계종 교구본사 및 국립공원 내 문화재사찰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당 사찰이 제작해 제출해야 하는 '지적 이 표시된 지형도' 작성법과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사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보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말까지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었지만, 아직 이를 심의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500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지정 권한이 해당 사찰의 주지에게 있어 획정 시 지역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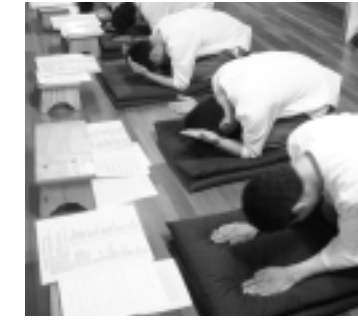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부산불교신협 108배 철야 정진기도

‘자산 1000억원 달성’ 발원

"지심귀멸례 서방 진허공계 일체제불." "지심귀멸례 서방 진허공계 일체존법." "지심귀멸례 서방 진허공계 일체현성승" 108참회문을 외는 소리만 성성적하게 들렸다. 몇 번이나 절을 했을까? 감물 가득 배어 있는 방석 위에 떨어진 짙은 땀방울만이 부처님께 가는 길인 것처럼 보였다.

5월 16일 부산 미타선원 극락전에서는 특별한 정진기도가 시작됐다. 삼보에 의지하고 5년 동안 매일 108배를 해왔다는 부산불교신협(이사장 유석영) 직원들 12명이 자산 1000억원을 조성하고 불발홍포와 불사에 동참하고자 발원하며 모인 것. 정내철 전무는 "한 달에 한번 직원들과



함께 사찰을 방문하고 3개월 동안 3000배를 부처님께 올리고 회향할 예정"이라며 "부산불교신협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수호와 발전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기 대리는 "부산에 하나 밖에 없는 불교신협으로써 성장해 기쁘다"고 말했다.(051)633-9120

하성미 기자

수형사孝수필 공모전 개최

육천 대상사, 7월 20일까지

육천 대상사(주지 혜림)는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2회 수용자 효(孝)수필, 신행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형사들의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명에는 상금 30만원과 부상,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20만원과 부상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8월 1일 발표한다.

한편 대상사는 5월 30일 저녁 7시 청주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제1회 대상사 효편지 응모작을 묶은 책 <길 누군가와 함께 가리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43)732-5560

여수령 기자

해운대 수륙고혼천도 방생법회

백용성조사유신실천회는 5월 13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고혼천도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불심도문 스님은 무상계와 고려대장경 6부 핵심사구계를 설해 수륙고혼들을 천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수륙고혼천도법회는 1911년 백용성 조사가 한강에서부터 처음 시작해 한탄강, 임진강, 금강, 선전강, 낙동강, 부산 송도, 부산 광안리를 거쳐 해운대 앞바다까지 97년간을 봉행해온 유서 깊은 법회다. 김원우 기자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성료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가 5월 1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특별무대에서 진행됐다.

과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도 진행된 음악예술제 1부에는 파주·고양시 불교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선보였다.

2부에는 동두천·의정부시 불교연합합창단과 회동사 불비니 어린이 합창단, 양주시 불교연합합창단이다. 3부에는 남양주·구리시 불교연합합창단, 경기북부 불교연합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알렸다. 고영배 기자

광동중·고 합동수계식 봉행

조계종 종립학교인 광동중·고등학교 합동수계식이 5월 11일 광동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광동학원 이사장 일민 스님을 계사로 중학생 650명, 고등학생 750명, 교직원 38명 등 총 1438명이 계를 받았다.

합동수계식에서 일민 스님은 "불타이를 알고 잠으면 손이 털 데는 것과 같이 잘못을 알고 범하면 스스로 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 점차 허물을 멀리하고 점차 밝을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오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고영배 기자

영남자비봉사단 18개 병원 순회

대구 한국(영남)불교대학 영남자비봉사단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구 지역 18개 병원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5월 11일 김동 500개와 덕 과일 음료수 등을 마련해 시립의료원 보훈병원 등을 차례로 돌며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순법선 대구지사장

“영담 스님 공개참회하라”

불기법 '결례발원' 관련 성명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성수)는 불교계 언론을 '결례'로 표현한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의 발언에 대해 영담 스님의 공개 참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5월 16일 발표했다.

영담 스님은 5월 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가 주최한 '가정 건축불사관리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번 결례 같은 신문 누가 보겠느냐" "불교신문이 이따금데 다른 신문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영담 스님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5월 24일까지 공개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어 "현재 불교방송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영담 스님의 이번 발언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자 나아가 교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함께 수많은 독자들을 곁에 취급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하고 "공개 참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불교기자협회는 당사자가 발언에 책임을 지도록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교계 언론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언제든지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